

세상사는 지혜 담은 '정선강의 채근담' 번역

'십현담주해'로 본 선불교적 시세계



퍼내도 줄지 않는 바다... 만해

만해 한용운의 플뿌리 이야기 한용운 지음 | 효림 스님 옮김 | 바보새 | 1만2천원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 김광원 지음 | 바보새 | 2만원

만해 스님은 우리 불교사나 문화사에서 퍼내도 줄지 않는 바다와 같은 존재다. 수행자이자 시인으로, 수난기에 민족을 구하려 했던 독립지사이자 정신적 지도자로서 다양한 삶의 무늬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문학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에, 민족운동가와 수행자로서의 모습이 덜 알려진 면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나 만해 스님을 알지만 그 진면목을 아는 이는 오히려 드물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월 29일, 스님의 열반 61주기를 기해 바보새 출판사에서 선보인 <만해 한용운의 플뿌리 이야기>와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는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다.

<만해 한용운의 플뿌리 이야기>는 1917년 발간된 만해 스님의 <정선강의 채근담>을 효림 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정신 수양의 방편으로 <채근담>을 택한 만해 스님은 단순한 처세술만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를 알려준다. "흰머리의 슬픔이 없으려면 젊어서 뜻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불운에 빠져 곤궁하고 쓸쓸하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조를 지켜라" 등의 가르침은 발간된 지 9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책에서는 <채근담> 원문을 생략하고 만해 스님의 해설만 가려 '수양과 성찰' '마음 자리' '평가와 토론' '마음의 여유' '처세와 수양의 논리'로 나누어 정리했다. 여기에 효림 스님이 만해 스님의 글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덧붙였다. 효림 스님은 "정선강의 채근담"은 그 문장이 더할 수없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일생을 수행하는 승려이자 독립시자로 살았던 스님의 사상과 철학·처세술 등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한다.



만해기념관의 만해 스님 흉상.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는 의상만 해연구원 김광원 연구위원(전주 중앙여고 교사)이 만해 스님의 시를 그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책이다. 지은이는 "선(禪)의 세계를 기초로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는 <님의 침묵>은 그 난해성 때문에 아직도 시에 내재된 일관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한시와 자유시, 시조 등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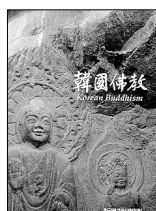
님의 모든 시는 선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는 만해 스님의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십현담주해>를 주목한다. 지은이는 "님의 침묵"에 실린 90편의 시와 <십현담주해>의 90구(句)를 대조해 본 결과, 이들은 서로 일대일의 순차적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곧 <님의 침묵>의 창작 배경이 <십현담주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제 고향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옵니다'라는 구절은 <십현담주해>의 '꽃이나 달과 같은 일체의 아름다운 것이 일찍이 모두 없어져야만,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옥과 같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은이는 만해 스님의 생애와 정신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불교 사상, 문학사적 위상 등을 다양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살피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불교 종단 현황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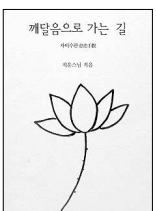
한국불교 종단현황의 펴낸 비매품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불교 종단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정)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6개 회원종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 <한국불교>를 펴냈다.

각 종단에 대한 소개와 대표적인 사찰, 주요 활동 현황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정)의 창립 과정과 역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산사의 하루나 스님이 되는 과정, 강원과 선방의 역할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도 담겨 있다.

법정 스님은 발간사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전통과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02)732-4885



깨달음으로 가는 길 지은 스님 지음 범공양 11만원

자비수관 수행법 지침서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는 지은 스님(대구 용연사 주지)이 자비수관의 정의와 구체적인 수행법 등을 담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펴냈다.

'자비수관'이란 위빠사나와 밀교 수행이 가미된 수행법으로, 의식으로 만든 자비의 손(手)으로 몸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기법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몸의 감각이 사라져감에 따라 감정과 심리도 사라짐을 보고, 근본마음인 불성(佛性)을 깨닫는 것이다. 그동안 남양주 불인사와 불교TV 등을 통해 자비수관 수행법을 지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자비수관의 정의, 관찰의 대상과 깨달음의 수단, 수행효과와 이익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글의 각 단락 마지막에는 '되돌아보기'를 두어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독자들이 더 궁금해 할 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수행 중에 나타나는 단계별 특징과 잘못된 수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불가촉천민의 해방자 암베드카르



암베드카르 평전 게이일 음베트 지음 이상수 옮김 필맥 | 1만2천원

"우리가 고양이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나의 조국이라 부르고, 이 종교(힌두교)를 나의 종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불리는 빤라오 람지 암베드카르(1891~1956)는 카스트 제도의 뿌리라 여긴 힌두교를 공개적으로 버렸다. 그 후 20여년에 걸친 속고 끝에 그는 불교를 선택했다. 불가촉천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종교라 여겼기 때문이다.

<암베드카르 평전>에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그들을 부당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앞장섰던 암베드카르의 일대기가 담겨 있다.

책에서는 특히 20세기 초 인도 해방을 위해 앞장섰던 간디와 암베드카르의 사상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은이는 "1902년 이후 암베드카르는 간디를 진정한 개혁가가 아닌 카스트 제도에 묶인 힌두교의 수호자로 여겼다"며 암베드카르는 진정한 인간 해방과 평등을 위해 불교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인도 네루기념박물관 선임연구원 게이일 음베트 지은 책은 이상수 교수(한남대)가 우리말로 옮겼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번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채선(箕城奘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초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새로나온 책

■ <우리가족 환경이야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펴냄, 비매품) = '쓰레기제로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유수)이 지난해부터 정토회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환경실천단 쓰레기제로운동'의 실천사례를 책으로 펴냈다. 쓰레기제로운동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면생리대 사용하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므로써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 300여명에 달하는 가족환경실천단이 일일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쓰레기제로운동을 실천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토회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쓰레기제로운동 실천현황과 어려움 점, 가정에서의 쓰레기 발생 경로, 처리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의 체험기와 일일점검표 작성법, 실천목록 등이 실려 있어 가정에서의 실천 지침으로도 쓸 수 있다. (02)587-8997

■ <보리 부처님> (김연호 지음, 수미산, 1만원) = 우리는 선우 제천 지회 김연호 회장(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이 두 번째 수필집 <보리 부처님>을 펴냈다. 김 회장은 1973년부터 충북 제천 지역에서 제천불교청년회, 제천불교학학회, 제천사립회 등의 불교 단체를 창립하고 불서 보급, 군법당 법회 지원, 티베트난민 돕기 운동 등을 펼쳐며 지역 불교를 이끌어 온 인물. 지난 199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소장 문화재 500점을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책에는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과 일상생활에서의 단상, 포교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보람, 티벳 성지 순례기 등 40여 편의 수필이 담겨 있다.

■ <사소한 것은 날려 버려라> (사이토 이사무 지음, 안희택 옮김, 지식여행, 9천5백원) = 사이트 이사무 교수(일본 릿쇼대가)가 들려주는 '마음의 응어리 푸는 법'. 사이트 교수는 "하루 5분씩만 '마음의 마사지'를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찰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상처 인정하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상대방의 화 풀기, 질투심을 자기 계발에 이용하기 등의 지침이 소개된다.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문영양

건강 대안사님의 인가계자인 대원문채현 선사님이 역작한 <마로보인 전문영양> 전문영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 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등은 불교사의 미증유한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달포만에 재판돌입, 베스트셀러 1위 (도서출판 운주사 6월 집계)

윤회인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에 부흥 ...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 우리는 수행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혹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현 스님(춘천 현지사 회주)이 전하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현대불교신문)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